

# 일가족 3명 살해범...당신이 신고한다면

검찰이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10대 학생을 비롯, 3명의 생명권을 박탈했고 잔혹하고 대담한 범행 수법 등을 들어 '흉악 범죄에 너무 온정적으로 판결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1일 아는 여성과 그 어머니·딸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양형은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가 지난해 9월 29일 오후 6시 50분

## 광주고법 원심으로 무기징역...법조계 안팎 온정적 판결 논란 검찰, 1심 양형 너무 가볍다 '사형' 선고 요청에 법원 "계획적 아닌 우발적 살해" 판단 항소 기각

광주시 서구 모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A(여·40)씨를 살해한 뒤 1시간 여 만에 A씨의 어머니(68), 딸(12)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A씨를 살해하는가 하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때마침 범행 현장에 들어온 A씨 어머니와 딸까지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과 동기가 잔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

형 배정을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이 인간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 사형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 정도와 형벌 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할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다.

인권적 측면에서 사형 선고만은 피하기 위한 항소심 재판부의 고심과 엄격한 법 적용을 엿볼 수 있는 판결이라는 견해가

나오지만 논란도 제기된다. 2차례의 실형 전격(강간치상, 특수강도)에다, 제압하고 달아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임에도 10대를 굳이 살해한 점, 일가족 3명의 생명을 빼앗은 '흉악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법 감정'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한 간부는 "범행 동기, 수법의 잔혹성, 3명을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결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도 없고 향후 (강력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의 경우 지난 1999년 12월 1심에서 살인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이후 현재까지 사형 선고가 내려진 바 없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7    해질 19:47  
 일출 02:03    일몰 15:10

#### 주말 '무더위'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19/31	보성	맑음	17/30
목포	맑음	18/26	순천	맑음	20/32
여수	맑음	20/27	영광	맑음	18/30
나주	맑음	18/31	진도	맑음	18/28
완도	맑음	19/29	진주	구름맑음	19/31
구례	맑음	17/32	군산	구름맑음	18/28
강진	맑음	19/30	남원	구름맑음	18/30
해남	맑음	18/29	홍산도	맑음	18/25
장성	맑음	17/30			

####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해	남서~서	0.5~1.0	남~남서	0.5~1.0
남부	남해	남서~서	0.5~1.5	남서~서	0.5~1.5
남해	남해	남서~서	0.5~1.0	남서~서	0.5~1.5
남해	남해(동)	남서~서	1.0~1.5	남서~서	1.0~2.0
남해	남해(서)	남서~서	1.0~1.5	남서~서	1.0~2.0

#### 물때

목포	물몰		물올	
	시각	수위	시각	수위
여수	10:07	03:06	22:57	15:44
	22:57	15:44	05:15	11:29
	18:01	00:00		

#### 주간 날씨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18(목)	19(금)
☀	☀	☀	☀	☀	☀	☀
21/29	18/30	18/30	18/30	19/29	19/30	19/29



**생활지수**

- 경고: 식중독
- 40: 운동
- 80: 빨래

## 전직 국회의원과 친분 과시 "자녀 입학 돕겠다" 5억 쟁거

광주북부경찰은 11일 전직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다며 자녀를 유명대학 로스쿨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말부터 2010년 11월 초까지 광주시 북구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만난 B씨에게 "자녀의 입학에 도와주겠다"고 속여 세 차례에 걸쳐 5억 원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사무실을 자주 찾는 B씨의 자녀가 유명대학 로스쿨에 다니고 싶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간부를 지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해당 대학 총장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B씨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 등 개인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아빠와 모내기 체험

광주 동초등학교(교장 심상화) 충효분교 학생들이 지난 10일 광주시 북구 충효동 학교 앞 들녘 논에서 모판을 들어올리는 등 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

원안위는 외부 요인에 의해 정지된 한빛원전 2호기의 송전선로 작업착차 개정 등 재발방지 대책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

## 원안위, 한빛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3일 정지된 한빛원전 2호기에 대한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장 원인은 한국전력 측이 송전선로 차

단기 작업을 마친 후 차단기 보호계정기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아 오신평가 발생하면서 원전이 가동 중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원전 2호기는 이날 재가동에 들어가 오는 13일 100% 정상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다. /영광=이종행기자 jylee@kwangju.co.kr

## 순천 승용차 옹벽 받아 1명 사망

11일 새벽 5시20분경 순천시 송광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박모(여·61)씨가 몰던 프라이드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은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박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박모(여·87)씨가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진 박씨가 커브길을 주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순천=김은총기자 ejkim@

## 당분간 비소식 없는 광주·전남 가뭄 걱정

단비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광주와 전남지역엔 당분간 비소식이 없을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2일 광주·전남지역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조금 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11일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20도, 낮 최고기온은 26도~32도 분포를 보이겠다. 이는 평년기온보다 1~3도 가량 낮은 기온이다.

주말인 13일엔 구름이 많이 낀 맑은 날

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아침 기온은 18도~21도, 낮 기온은 24도~30도로 평년기온을 보단 낮겠지만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이 같이 평년기온보다 낮은 이유는 광주·전남에 구름이 다소 많이 끼면서 일사(日射)가 차단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날씨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당분간 비소식을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수면제 먹고 자살 기도 30대 여성 경찰관 기지로 구사일생



○수면제를 마시고 자살을 기도하던 30대 여성을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해 무사히 구조.

○11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A(여·38)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10분께 여수시 학동 B오피스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여수경찰 쌍봉지구대 소속 경찰관 김승천(51)

경위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식을 회복했다는 것.

○경찰은 A씨가 자살을 시도하려한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환란문이 잠겨 있었는데, 김 경위는 "환란문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A씨의 휴대전화 뒷번호 네 자리를 누르자 문이 열렸다"고 설명. /여수=김창희기자 chkim@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4-GN1-36-0110

가격부담을 속 시원하게 덜어드립니다!!

# 대한보청기

# 맞춤 렌탈

수백만 원짜리 보청기, 한달 3~4만원으로 가능합니다!!

- 첫째, 한달 3~4만원!!
- 둘째, 전부 무료
- 셋째, 맞춤 귀속형

고가의 보청기를 가격 부담 줄여 사용 수백만 원짜리 고급·고가 보청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평생1회 가입비는 표준 모델 기준 : 242,000원입니다.

무료 A/S, 무료 배터리, 무료 청력검사, 무료 테스트, 무료 맞춤 상담...

보청기 관리를 위한 모든 제반 서비스가 전부 무료입니다.

대한보청기의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기술

개인 청력에 딱 맞게 아주 속 시원히 대화, TV, 전화 등 다양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광주본점 지금 상담중!! 062)430-8900

순천·여수 본점 지금 상담중!! 061)741-4880

전주본점 지금 상담중!! 063)251-4999

대한보청기 전국 직영 센터

강안본점 02)2248-5600 ● 증로본점 02)743-8100 ● 강남본점 02)542-8500 ●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 영등포본점 02)2637-2800 ● 관악본점 02)3285-7600 ●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 수원본점 031)248-7200 ● 분당본점 031)707-5787 ● 양산본점 031)917-1100 ● 의정부본점 031)840-2001 ● 구리본점 031)551-1310 ●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 청주본점 043)225-2900 ● 대전본점 042)486-9944 ●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 대구본점 053)253-4400 ●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 포항본점 054)231-8070 ●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 부산본점 051)819-0038 ● 부산북구(덕진)본점 051)335-7800 ● 울산본점 052)256-9050 ● 마산-창원본점 055)222-3050 ●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대한동구본점은 대한보청기와 우송대학교 언어청각학과 공동 연구개발 및 연구 협력국입니다.

\* 상기본사재원은 전국 어느 지사를 가나 동일한 시스템(제품·가격·서비스)을 제공합니다.

www.maxo.co.kr